JBLI이슈페이퍼 2026-03

전시장에 놓인 노동자의 목소리
: 《이리 꼬뮨》으로 다시 읽는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기록

| 조용화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조용화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BLI이슈페이퍼 2026-03
전시장에 놓인 노동자의 목소리: 《이리 꼬뮨》으로 다시 읽는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기록

발행일 | 2026년 7월 8일
발행인 | 염경석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3층
전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li@gmail.com

전시장에 놓인 노동자의 목소리

: 《이리 꼬뮨》으로 다시 읽는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기록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나 고백할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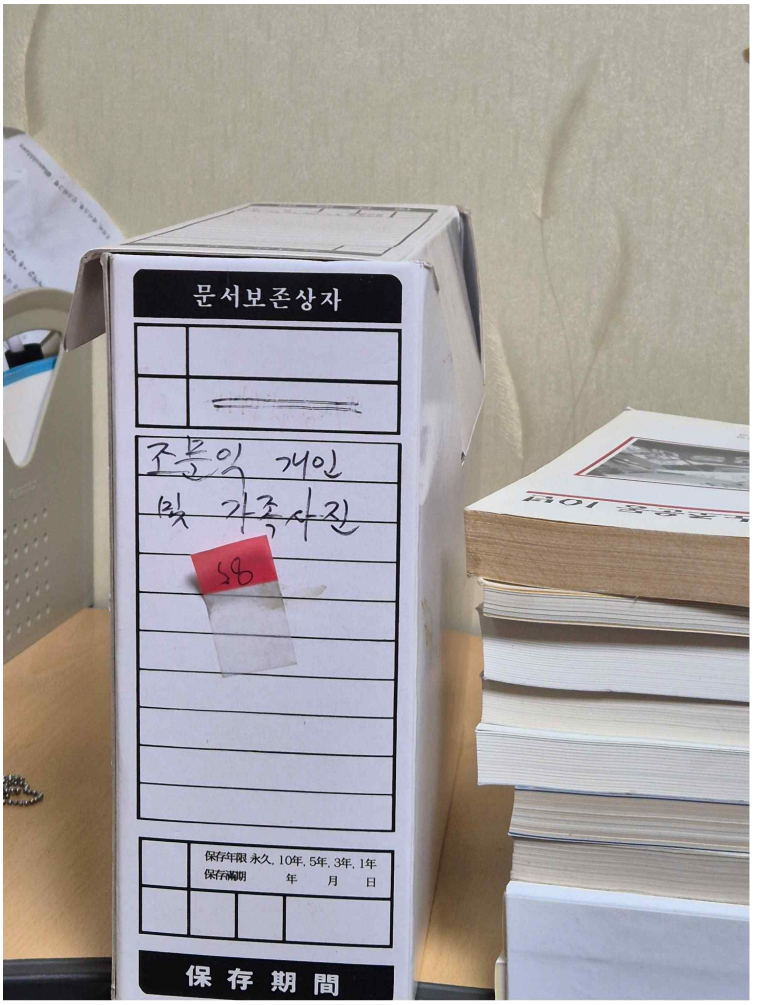
이번 글은 한 사람의 시간을 관통하는 다른 시간의 조각을 더듬는 작업이다. 내가 《이리 꼬뮨》을 통해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에 접속해 상자를 열어 본 시간의 기록이다.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시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기록되지 못한 채 현재와 닿아있다. 나는 그 중 '아카이브 archive'란 이름으로 보존된 기록을, 그리고 기록되지 못한 기억의 흔적을 따라 내가 아는 시간과 연결하려 했다.

그것 중 일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것 중 일부는 기억 속에서 날조되었을 것이다. 어떤 것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고 말았을 것이다. '나'라는 사람의 기억을 '연구원'의 '이슈페이퍼'로 발간하는 작업이 적

합한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그 시간을 여는 문이 된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자료와《이리 꼬뮨》전시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끌어오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자신도 없다.

다만 나는, 이 글을 써야만 했다는 것을 말해둔다.

<그림 1>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원자료 문서보존상자 85번



1. 내 방에 놓인 하나의 상자

내 방에는 하나의 상자가 있다. '문서보존상자'라 적힌 인쇄 폰트 아래, 누군가 휘갈긴 “조문익 개인 및 가족사진”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85'가 쓰인 붉은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상자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열어본다. 낯설고 익숙한 모습들이 보인다. 어린 나는 햇빛에 눈을 찌푸리고, 웃다가, 나뭇가지를 든다. 초등학교도 안 간 동생이 보인다. 내 나이쯤 되어 보이는 엄마가 있다. 그리고, 아빠가 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은 온갖 장소에 가 있다. 깃발들이 보인다. 집회 현장에 따라간다. “분쇄!! 공안탄압”과 “박살!! 신자유주의”, “농성 3일”과 “롯데불매”가 써붙은 벽 앞에서 적힌 말을 따라하기라도 하듯 포즈를 취한 동생과 내가 생경하다. 아빠가 있다. 투쟁 대오가 보인다. 회의장이 보인다. 공장이 보인다. 노동자들이 보인다. 익숙하고, 낯설다.

이 ‘85번’ 상자는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원자료 중 일부다. 아카이브 원자료 대부분은 현재 전산 아카이빙 작업을 수행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상자가 내 방에 있는 이유는,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원자료 상당수가 조문익, 아빠의 손을 거쳐 돌아간 자료[1]이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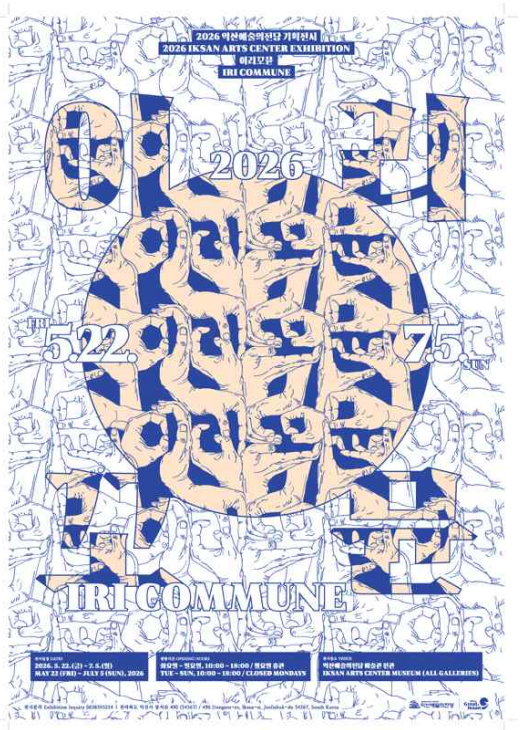
1) 정확히는, 2009년 발간된 전북지역 노동운동사 연구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있던 그가 노동운동을 하며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아두었고, 이 자료는 다른 프로젝트 자료와 함께 한동안 우리 가족이 머무르던 논실마을학교에 보관되어 있었다. 아빠 사후 자료들은 나처럼 이사를 다녔다고 들었다. 그것과 다시 만난 건 한참 뒤였다.

<그림 2>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파일목록 중 “조문익 가족사진”

658	01-노P200010657	조문익 가족사진20		조문익 개인 및 가족사진		
659	01-노P200010658	조문익 가족사진20		조문익 개인 및 가족사진		
660	01-노P200010659	조문익 가족사진20		조문익 개인 및 가족사진		
661	01-노P200010660	조문익 가족사진20		조문익 개인 및 가족사진		
662	01-노P200010661	조문익 가족사진20		조문익 개인 및 가족사진		
663	01-노P200010662	사무실		조문익 개인 및 가족사진		
664	01-노P200010663	2종보통어린이자전거운전면허증-조문화		조문익 개인 및 가족사진		
665						

그래서 이 자료들 곳곳에는 우리 가족이 있다. 심지어 내가 유치원에서 받은 ‘2종보통어린이자전거운전면허증’이나 그때쯤 찍었을 법한 깨벗은 사진도 있다. 나는 아카이브 전산 작업이 끝나고 이 문서보존상자를 받았다. 열어보고, 그 뒤로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 나는, 그 상자가 여전히 낯설다.

<그림 3> 《이리 꼬뮨》 전시 포스터



이 글은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전시 《이리 꼬뮨》을 입구로 삼아 낯선 상자를 열어보는 작업이다. 《이리 꼬뮨》은 1980년대 이리자유수출지역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의 민중미술과 문화예술운동의 형성과 흐름을 살피는 기획 전시로, 기간은 5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다.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도, 이리란 이름이 곳곳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사라진 이름이다.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이후 1995년 '익산'이란 이름에 흡수되어 역사의 뒤로 희미해진 이름을, 《이리 꼬뮨》은 굳이 2026년 여기서 우리에게 불러낸다. 이곳을 입구로 삼는 이유는 하나다. 《이리 꼬뮨》 전시가 시작 전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자료” 열람 및 대여 요청을 통해 구성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연락이 온 건 아빠에 대한 기억을 더듬던 시기였다. 전시 기획서와 함께 우리 연구원에 온 메일에 쭉 마음이 쓰였다. 첨부된 대여희망목록에는, 1980~90년대 이리의 공장에서 오간 문서들의 제목이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소식지, 성명서, 임금인상 요구안, 투쟁일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문서들. 내 방의 상자가 그랬듯 한동안 제대로 보지 않고 싶었다. 하지만 이건 일이었고, 그래서 도망치듯 목록을 읽었다.

그 사이에서 “언니 읽어봐요”와 “누나에게”란 이름을 단 유인물을 봤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누군가가 누군가를, 언니와 누나란 이름으로 부르며 건넨 말이 사료의 일련번호를 달고 거기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제목에서 오래 멈췄다.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 그 멈춤에서부터 상자로 손을 뻗는다.

2. 상자 옆에 쌓은 아카이브의 가지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연혁'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2019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준비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 편찬발간위원회 구성

(…)

2021

2021.01.20. 창립 이사회, 정관 제정 및 임원 선출과 연구원장 임명

2021.01.28. 민주노총전북본부 제2차 운영위원회, 부설 연구원장 승인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는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사를 정리하는 연구의 성과로서 2021년에 발간되었으며, 80년대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이를 계승한 민주노총전북본부가 걸어온 길을 다룬다. 그리고 위의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의 역사는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 연구 작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전북노동정책연구원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는 그 중심에 있는 자료다.

<그림 4>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자료 구분 및 분량

전북노동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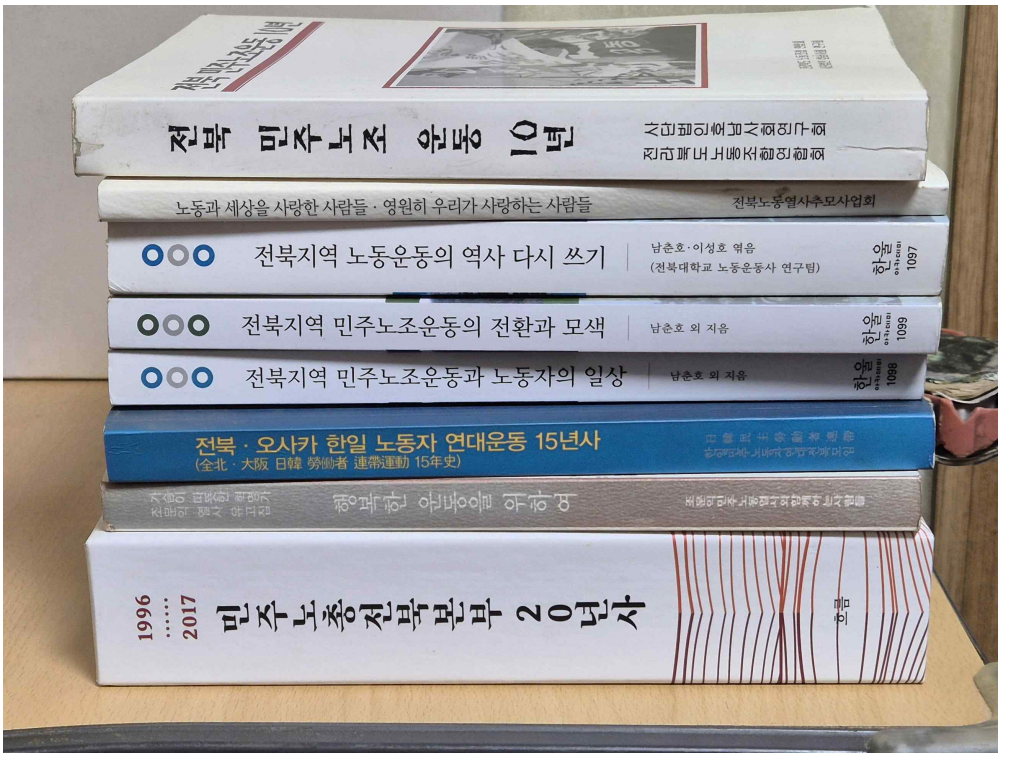
분류번호	구분	자료함
01	전북노련	7
02	단위노조	24
03	민주노총	5
04	병원노조	14
05	의보노보	4
06	전교조	1
07	공무원노조	
08	천주교 노동자의집	4
09	JOC	6
10	연합단체	3
11	한국노총	1
12	노동운동단체	3
13	한일노동자연대	1
14	정부기관	3
15	교수노조	
16	전주가톨릭노동자센터	2
17	기타단체	2
18	일터교회자료	1
19	노동외	15
*02	전국노조	7
합계		103

분류번호	구분	자료함
노P01	전북노련	1
노P02	단위노조	1
노P06	전교조	1
노P08	노동자의 집	
정P01	국민승리21	
노P19	미확인사진자료	1
미P01	기아특수강	1
-	아세와 스와리	
합계		5

진행률	분량	완료
자료함	108	108
문서 건	4,283	4,173
사진 건	-	1,534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북 지역 노동운동에 닿아있던 이들의 흔적이 발간물•회의록•유인물•잡지•소식지•요구안•깃발•그림•교육자료 등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들의 몸, 그들의 삶, 그들의 시간이. 그 분량은 전산자료 기준 문서 4,173건 79,185컷, 이미지 1,535건 1,920컷이며, 이는 원자료를 담아 둔 문서보존상자 108개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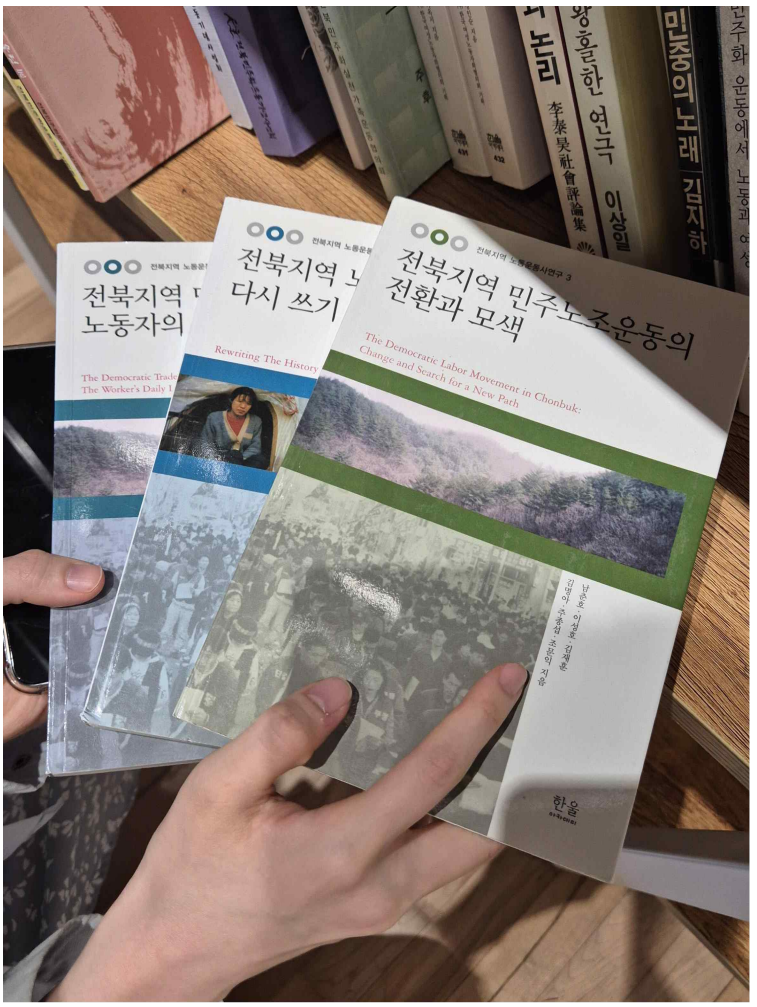
<그림 5> 상자 옆에 쌓은 아카이브의 가지들



그리고 이 아카이브는『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의 원천이자 그 모음이기도 하다. 이 문장을 적어두고 방 안에서 손에 닿는 자료들을 상자 옆에 쌓았다. 모두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은 자료들이다. 낡았다. 먼지를 턴다. 대부분 내 책이 아니다. 어느 순간 내 책장에 방치되어 있던 책이다. 하나씩 이름을 부른다.『전북 민주노조 운동 10년』,『노동과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전북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다시 쓰기』,『전북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전환과 모색』,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의 일상』, 『전북 · 오사카 한일 노동자 연대운동 15년사』, 그리고 『행복한 운동을 위하여』.[2)]

<그림 6> 《이리 꼬뮨》 전시장에도 놓인 가지들



2) 이들 중 몇 권은 《이리 꼬뮨》 전시장에도 놓여 있다. 전시장 사진은 별도로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글에서 사용된 사진의 전시물 원본들은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자료의 일부다.

마지막 이름을 본다. 아빠의 유고집, 『행복한 운동을 위하여』. 나온 지 20년이 되었지만 읽은 글은 몇 없다. 나는 이것들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다. 멀어졌다. 아카이브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펼쳤다. 전시장의 기억을 되살린다. 펼친 책 위로 전시장의 기억을 덮는다. 아빠는 어린 시절, 이리에 살았다.

3. 기억에는 있으나 기록에는 없는

다시, 이리란 이름을 부른 목록으로 돌아간다. 나를 이곳으로 부른 유인물 "누나에게"가 있다. 1981년,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발생한 민주노조운동 현장인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사수투쟁'[3]의 자료다. 부당해고와 단식, 복직투쟁의 문서들 틈에서 누군가는 언니에게 읽어보라 했고, 누군가는 누나에게 편지를 썼다. 내겐 정리번호와 발생연도('미상'이라 적힌 것도 많았다) 사이에서 그 호칭들만 다른 온도로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성명서는 조직의 목소리로 말하지만, '언니'와 '누나'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다. 어쩌면, 기록에 남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 말들. 나는 그 온도가 어

3) 해당 투쟁의 상세는 이성호(2009)의 글을 참고하라. 이 글은 태창메리야스 투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태창메리야스는 의류제조 대기업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였다. 또한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기업의 통제와 어용화된 노총의 방해 속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 특히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운동은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으로 당시 여성노동운동의 양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고, 동시에 전혀 모른다는 것도 알았다.

그 말들이 낯설지 않았던 것은, 나에게도 기록에 없는 기억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한일노동자교류로 오사카에 갔던 일이다. 강당에서 누군가 발표하는 동안 나는 와사비 과자를 먹고 얼굴을 찡그렸고, 밤에는 전북에서 함께 간 어른들과 다다미방에 나란히 누워 잤다. 오사카성에도, 가이유칸(海遊館)에도 갔다. 나중에야 들었다. 어린아이가 온다고 오사카의 노동자들이 일정을 그렇게 짰다는 것을. 분명히 있었던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한일노동자국제연대의 어떤 기록에도 그 시간은 없다.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는 30쪽에 달하는 분량(398~428쪽)으로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한·일 노동자 연대운동 연표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방한단과 방일단 명단과 소속까지 모두 세세히 적혀있다. 이 기록은 다시 별책으로 발간된 『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 연표』에 흩어진 채 남아있다. 하지만 내 이름은 연표, 방일단 명단, 결의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내게 남은 기억은, 아카이브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 말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에는 있으나 기록에는 없는, 그러나 여럿이 기억하는 시간. 나는 이 어긋남을 안고 아카이브 앞에 선다. 노동운동의 기록은 대개 이긴 날과 진 날, 결의한 날과 연행된 날의 순서로 남는다.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또한 크게 다르진 않다. 그 순서 바깥으로, 어린아이를 위해 바뀐 하루의 일정 같은 것은 흘러나간다. "언니 읽어봐요"와 "누나에게"도 그렇게 흘러나

갈 번한 말들이다. 어떤 목소리는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 글이 목록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이곳에 남은 승패의 연표가 아닌, 그 연표가 미처 담지 못한 온도를 확인하러 전시장에 갔다.

그러니 물음은 두 갈래로 놓인다. 노동운동의 기록은 왜 전시장에 놓였는가. 그리고 전시장에 놓인 그 사료는 오늘의 노동운동에 무엇을 되묻는가. 《이리 꼬뮨》은 1980년대 이리를, 서로 다른 사회적 층위가 연대를 통해 결속한 하나의 '꼬뮨'으로 명명한다. 나는 그 명명을 존중하되, 목록을 손에 들고서 전시장의 기억을 불러오려 한다. 전시가 관람객을 맞이하는 입구는 후레아훼숀 여성노동자들의 국제 연대이고, 거기서 선은 아세아스와니의 일본 출정투쟁으로 이어진다. 나는 그 선을 따라 들어가, 끝에서 멈추지 않고 그 조각들을 다시 모아 나올 것이다. 꼬뮨이 무엇을 결속시켰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지 못했는지 함께 묻기 위해서다.

4. 기록의 온도, 기록이 남기지 못한 온도

이리라는 도시는 지도에 없다. 앞서 말했듯, 1995년 익산군과 통합되면서 그 이름은 행정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이 글이 다루는 시간-전시장에서 그 도시의 이름은 이리였다.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기차가 폭발하는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다. 역 주변이 무너졌고, 도시는

'새 이리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어졌다. 그보다 앞선 1973년, 이리에는 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다. 외국 자본이 관세 없이 들어와 공장을 짓고, 만든 것을 그대로 실어 나가는 땅. 폭발로 무너진 도시와 자본을 위해 비워둔 땅 위에, 공장들이 세워졌다. 그곳에 태창메리야스가 있었다. 후레아훼숀이 있었다. 백양이 있었다. 그리고 1978년, 일본 스와니가 지분 전부를 가진 장갑 공장, 아세아스와니가 세워졌다. 미싱 앞에는 대부분 십대 후반의 여성들이 앉았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학교에 다니는 열여섯에서 열아홉의 노동자들이었다.

전시는 후레아훼숀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의 설명문은 1980년대 이리의 공장을 먼저 공간으로 읽는다.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나 결속의 가능성은 체계적으로 차단된 곳. 가혹한 노동강도와 생존에 겨우 닿는 급여가 옆 사람의 삶과 이어질 틈을 지웠다. 그러니 이곳에서 연대는 주어진 관계가 아니라 만들어야 했던 관계다. 설명문의 거점 셋, 창인동 성당, 중앙교회, 수출자유지역의 공장이 그 관계가 지어진 자리들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공적 목소리를 할당받지 못한 노동자들, 그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을 가리킨다. 후레아훼숀의 여성노동자들은 1982년 태창 '블랙리스트' 사건의 여파 속에서도 조직을 만들었다. 소식지 〈현장의 소리〉를 냈고, 최저생계비를 계산해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그들의 연대는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야학, 노동자의집을 거점으로 바다를 건넜다. 아카이브에는 독일어로 된 유인물이 남아있다. 이수현 신부가 독일 수상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 재독

한인여성모임에서 독일 여성단체들로 이어진 연결을 전시는 '예기치 못한 국제적 성좌'라 부른다. 그 성좌가 1989년 아세아스와니의 일본 출정투쟁으로 잇닿는다고, 전시는 쓴다. 그 선을 따라 걷는다. 다만 내 걸음은 반대 방향이다. 전시가 후레아훼숀에서 아세아스와니로 선을 그었다면, 나는 아세아스와니에서 출발해 그 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되짚는다. 그 끝에 아빠가 살던 이리가, 기록에 남지 않은 어린 나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되짚으면 이렇다. 1983년 11월, 태창과 아세아스와니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해고되었다. 그중 한 사람, 김덕순이 겪은 일에는 부당해고만이 아니라 강간미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카이브의 열람요청 목록에서 "언니 읽어봐요"와 "누나에게"가 놓여 있던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다. 1984년의 〈태창메리야스㈜ 아세아스와니㈜ 노동자 탄압 진상보고서〉는 두 공장의 이름을 처음부터 하나의 문서로 묶는다. 사업장별로 자료를 나누는 것은 정리하는 사람의 관성이지만, 묶은 것은 당대의 손이다. 탄압이 공장을 가리지 않았으므로 기록도 공장을 가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국제 조직망을 타고, 1984년 12월 일본의 28개 단체가 서명한 항의문이 도쿄의 스와니 지사에 전달되었다. 오사카에서는 아세아스와니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노조가 생기기 5년 전에, 연대가 먼저 있었다.

1989년 4월 22일, 아세아스와니에 노동조합이 섰다. 다섯 달 뒤, 회사는 팩스 한 장으로 폐업을 통보했다. 자본은 철수하면 그만이었다. 수출자유지

역이란 본래 그렇게 설계된 땅이었다. 노동자들은 9월 28일부터 공장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겨울을 넘기며 200일. 그리고 12월 22일, 다섯 명의 대표가 오사카로 갔다. 양희숙, 서소화. 열람요청 목록의 유인물들처럼, 나는 이 이름들 앞에서도 멈춘다. 그들은 한국수미다, TND의 노동자들과 함께 일본 사회에 물었다. 공장을 닫고 떠나면 그 손들은 어디로 가는가. 오사카의 노동자들이 응답했다.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의 고려노련이 응답했다. 1990년 3월 13일, 시코쿠의 본사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폐업 사죄, 해고 철회, 해고수당과 퇴직금과 밀린 임금, 구속자 석방. 그리고 합의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다. 야간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나는 이 항목에서 오래 멈춘다. 싸움의 끝에서 그들이 받아낸 것 중 하나가, 계속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기록은 이것을 승리라고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경을 넘어간 노동자들이 다국적 자본의 본사를 협상장에 앉힌 일은 그 자체로 드물었다. 하지만 합의서가 서명되던 날에도 공장은 닫혀 있었다.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사카에서 투쟁을 지원하던 고려노련의 김희원 위원장은 누적된 피로 속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미싱 앞에 앉아 있던, 밤에는 교실에 앉아 있던 그 열여섯에서 열아홉의 노동자들이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직 열어보지 않은 아카이브 목록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세아스와니라는 이름이 달린 사진만 361건이 남아있다. 사진 속에 그들은 있다. 연표에는 희미하다. 연표에 남는 이름들은 대체로 단체의 이름이고, 간

부의 이름이고, 그마저 대부분 남성의 이름으로 읽힐 것들이다. 승리의 기록과 사라진 목소리는 같은 상자 안에 들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상자의 바깥뿐이다. 내가 경험해 온 바깥은 그랬다.

그럼에도 남은 것은 연대였을 테다. 1989년의 아세아스와니 일본 원정투쟁 이후, 1990년부터 전북과 오사카의 노동자들은 해마다 서로가 있는 자리를 오갔다. 투쟁 10년이 되던 2000년 오사카의 기념집회에서 한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했고, 2004년에는 일한민주노동자연대라는 상설 조직이 만들어졌다. 연대 20년이 되던 2010년의 기념집회 이름은 '또다시 앞으로'였다. 그리고 올해 가을, 제27기 방일단이 오사카로 간다. 서른일곱 해 전 다섯 명이 건넜던 바다를, 이제는 정기 항로처럼 건넌다. 어린 나를 데리고 아빠가 건넜던 것도 이 바다다. 폐업된 공장에서 시작된 연대가 공장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나는 이것이 이 연대기의 가장 이상한 점이 남긴 가장 정확한 구멍이라고 생각한다. 꼬뮨은 공장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공장 없이 살아남았다.

그러니 전시가 1980년대의 이리를 '꼬뮨'이라 명명할 때, 나는 그 이름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그 꼬뮨이 결속시킨 것은 사회적 층위들이고, 남기지 못한 것은 그 결속의 맨 아래에서 미싱을 돌리던 사람들의 이후다. "언니 읽어봐요"는 그 이후가 기록되지 못한 목소리들이 남긴, 몇 안 되는 육성일 것이다. 전시장에서 나는 그 육성이 담긴 유리장 앞으로 갈 것이다. 아빠가 모은 종이들이 놓인 자리로. 아빠를 따라, 이리로.

5. 전시장 입구: '이리'라는 이름이 다시 불릴 때

그리 생각하며 전시장에서 정말로 마주한 건, 당신들이 남긴 목소리였다.

<그림 7> 후레아훼숀 소식지·발행물

나를 이리 부른 “언니 읽어봐요”와 “누나에게”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충분하다. 그곳엔 후레아훼숀의 조각이, 흑백의 기억이, 아세아스와니로 이어진 기록이 있다. 판화가 있다. 사진이 있다. 필름이 있다. 다큐가 흘러나

온다. 극본이 있다. 연극 소리가 들린다. 자료집이 있다. 유인물이 있다. 연구보고서가 있다. 시간이 흐른다. 인터뷰가 있다. 영상 속에서 나이 든, 기록되지 않은 세월의 얼굴이 기록하지 않은 말을 떠든다. 연대표가 있다. 이리자유무역지구 투시도가 있다. 40년 전 후레아훼숀에서 엄마가 둔 "그래도 / 뭉치는 힘"(박정현/이순덕, 2026)이란 말 위에 딸이 "기쁨"으로 올려 둔 " 우리의 젊음"(박정현/이하나, 2026)이 뭉쳐져 있다.[4] 분노가, 눈물이, 웃음이 있다. 기록되지 못한 상처가 있다. 성공의 이름과 실패의 이름이 서로를 부른다. 그것들은 이미 목소리의 아카이브다. 삶과 몸이 남긴 흔적의 뜨개실이다. 그것은 예술과 연대, 꼬뮨이란 색의 실을 골라 서로를 찌른다. 아마 기록이란 게 그럴 것이다. 우리의 잇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

기록. 내가 아는 기록은 단편적이다. 어떤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접근할 수 있는 기록 중 일부는 유실되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면들이 간혹 아카이브 자료 이름 사이에서 떠오른다.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나조차 그것은 진실이라 확신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나는 이것이 확신도 없이 홀로 남은 기억을 믿으려 드는 사람의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당신들의 목소리 앞에서, 그 생각은 방향을 바꿨다. 전시장에 놓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있다. 어린아이가 온다고 일정을 바꾼 오사카의 노동

4) 나는 마지막 날, 전시장에 두 번째 가고서야 이순덕(2026)과 이하나(2026)의 이 '잇기'가 그곳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미 이 글의 초고를 완성한 뒤였다. 나는 초고에서 잇지 못했던 것들 위에 다시 몇 개의 천을 덧댔다. 어떤 잇기는 시간이란 실이 있고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자들이 있었다. 아마, 그날을 기억하는 것도 나만이 아닐 것이다. 다만 묻지 않았을 뿐이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받아줄지 확신하지 못해, 나만이 지닌 기억으로 구성된 삶이 당신들에게 찔릴까 봐, 나는 오랫동안 한일노동자연대와 거리를 뒀다. 아카이브에서 멀어졌다. 상자를 닫은 채로 두었다. 이제 알 거 같다. 나는 당신들을 보지 못한 채 당신들 곁에 있었고, 당신들은 나를 보며 곁을 내주고 있었다. 서로를 찌를지라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아카이브만이 아니었다. 나였다. 내가 있었다는 증거는 문서 어디에도 없지만, 당신들의 기억 속에는 있다. 나는 기록되지 않은 채, 이미 그 곁에 있었다.

나는 아직도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과거 자료를 만나면 우리 가족의 이름을 찾는다. 모습을 찾고 말을 찾는다. 그것은 조각나 흩어져 있다. 간혹 발견한 이름은 대부분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다. 목록에서 만난 "언니 읽어봐요"와 "누나에게"가 다른 모습이었듯이. 그 이름은 어떤 역사에 박힌 기록처럼 나와 먼 곳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서 각자의 몸으로 이곳, 전북 지역의 민주노조운동을 경험했고, 잘라낸 것들을 기억하고 또 잊으며 살아간다. 기록은 그것을 되살려내는 문이다. 조각을 꿰는 실이다. 그 시간의 노동자들이 우리의 모습에 겹쳐질 때,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몸을 넘어 미래로 향한다.

그러니 응해야 한다. 이번엔 내가 들여다볼 차례다.

과거의 목소리가 현재를, 이리로 부른다.

참고문헌

〈논문 · 단행본〉

남춘호 · 김재훈 · 김명아 · 주종섭 · 이성호 · 조문익. (2009).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전환과 모색』. 한울.

남춘호 · 이성호 엮음. (2009).『전북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다시 쓰기』. 한울.

남춘호 · 이성호 · 노중기 · 진양명숙. (2009).『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의 일상』, 한울

남춘호 · 이성호 · 차유미 · 강문식 · 노중기. (2020).『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 흐름출판사.

남춘호 · 이성호 · 차유미 · 강문식 · 노중기. (2020).『민주노총전북본부 20년사 연표』. 흐름출판사.

이성호. (2009). 19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운동 :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2), 128-164.

전북노동조합연합회·(사)호남사회연구회. (1996).『전북 민주노조운동 10년』.

전북지역노동열사추모사업회. (2005).『노동과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북지역노동열사추모사업회 자료집.

조문익민주노동열사와함께하는사람들 엮음. (2007).『행복한 운동을 위하여』.

일한민주노동자연대 · 한일민주노동자연대전북모임. (2005), 『전북·오사카 한일노동자 연대운동 15년사』.

〈전시 및 영상〉

익산예술의전당. (2026, 5월 22일-7월 5일).《이리 꼬뮨》[전시].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 박정현. (2026). 〈전시 설명문〉.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 이순덕. (2026). 〈그날(1)〉.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

- 이하나. (2026). 〈여기 기쁨으로 우리의 젊음을〉. 익산 예술의전당 미술관.
- 오두희 (감독). (2014). 〈스와니: 1989 아세아스와니 원정투쟁의 기록〉 [다큐멘터리]. 평화바람.

〈1차 자료〉

《이리 꼬뮨》 아카이브 자료 대여희망목록 (2026).

소식지 〈현장의 소리〉 (1987), 후레아훼숀 관련 자료군,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유인물 〈언니 읽어봐요〉 (연도 미상), 태창메리야스 관련 자료군,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유인물 〈누나에게〉 (1984), 태창메리야스 관련 자료군,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태창메리야스㈜ 아세아스와니㈜ 노동자 탄압 진상보고서〉 (1984),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

〈부록 1〉『전북 민주노조운동 10년(전북노동조합연합회 · (사)호남사회연구회, 1996)』 중 "책을 내면서"(447-449쪽)에 붙여

1. 이 낡은 책에는 저자 이름이 없다. 전북노동조합연합회와 (사)호남사회연구회라는 이름만이 박혀있다. 그 당시 누가 그곳에서 이 자료들을 모으고 준비해 글을 적었는지, 누렇게 변한 종이 사이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이에서 아빠의 흔적을 찾는다. 그러다 맨 뒤에 붙은 "책을 내면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 10년의 기록을 정리한 책을 낸 이들의 세 쪽짜리 짧은 소회였다.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어떤 이의 손이 이것을 적었는지, 알 수 없는 글. 나는 이번 이슈페이퍼 작업 막바지에 발견한 이 글을 통째로 〈부록 1〉에 가져다 두고 싶은 유혹에 휩싸였다. 내가 경험한 그 감정을, 이곳까지 읽었을 누군가 조금이라도 경험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여러 방향으로 알아봤지만, 이 책의 사용을 허락받는 일은 모호한 영역에 놓여 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누구에게, 말을…?

막막해진 나는 이곳에 세 쪽짜리 "책을 내면서" 위에 메모들을 잔뜩 덧붙여 두기로 했다. 글 안에서 80년대의 시간을 회고하며 내일의 후배를 부르던 이름 모를 이들에게 응답하기 위해 내가 찾은 방법은 그것이다. 읽고, 쓰는 것.

2. 이 글은 "남한, 80년대, 노동자"라는 단어를 입구에 둔다. 그들은 서정덩어리 그 시절의 잊지 못할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80년대를 아직도 사랑하냐고……" 그 80년대의 투쟁은 90년대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전북노련」을 해소하며 막을 내렸다. 사라진 옛사람들과 기억을 '기록'하며 마음은 버석거린다. 현장의 함성과 웃음은 종이에 눌려 뒤틀리고 욕하고 결혼하고 새 길을 찾아 돌아오지 않은 이들의 기억으로 덮여 사라진다. 그것은 종종 사랑하기엔 너무나 힘겨운 모습이 되어 남는다. 요즘도 가끔 이런 장면을 만난다. 당장 12.3 계엄광장의 기억은 하나의 빛깔로 표백되어 이 사회를 강화하는 구조 곁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쓸모없는" 작업은 한동안 중단되었다. 이들이 쓸모없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 계기는 "쓸쓸한 표정"의 한 선배가 "87투쟁이 다시 나타났다"며 전한, 익산공단의 "에이피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기록도 지겹도록 되풀이된 87투쟁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같은 목소리, 같은 말, 같은 얼굴, 하지만 점점 열화되어 가는, 투쟁의 풍경. 흉내는 원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메아리는 결국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가끔 아카이브 자료를 뒤지는 일은 외로운 작업이 된다. 조각나 버린, 더는 울리지 않는, 어쩌면 죽어버린 기억의 폐허를 헤매이는 일. 그건, 퍽 쓸쓸한 일이다. 내게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은 과거 대신 현재의 "'쌩쌩'하게 움직이는 요즈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부한 말속에서 '운동의 원동력'일지도 모

르는 것을 건져낸다. ‘진보의식’이란 말을. 진보란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세상이다. 꽤나 자주, 그렇게 느낀다. 그 추상적인 이름. 형태 없는 이름. 쓸쓸한 메아리의 잔재. 이들은 80년대의 향수와 허무가 뒤섞인 그 시간의 난잡한 폐허 속에서, 새로이 전해진 87투쟁의 메아리가 같지 않다는 것을, 새삼 다시 읽는다. 그것은 80년대일 수 없다. 희미해지고 뒤틀려가는 것처럼 느낀 메아리의 구호는 같았을지라도, 사실 한 번도 환경은 같은 적 없었다.

그들은 시간을 다시 읽는 법을 '진보의식'이란 말에서 떠올린다. 메아리에서 그 시대 사랑했던 것들의 부재를 읽는 대신, '요즈음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읽는다. 그리고 자신들에게서 사라진 그 열망, 80년대의 구멍을 메운 것이, 쓸쓸함이었단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입구로 돌아가 이미 읽은 것들을 다시 읽는다. 「전북노련」의 활동을 책으로 묶는단 소식에 반가워하며 찾아온 이들이 다른 이들과 만나는 광경을 바라보며, “남한, 80년대, 노동자”로.

감사 인사로 끝난 마지막 문장 위에 덧붙여진 소망을 다시 소리 내어 읽어본다. 빛나는 기억과 아픔이 있는 생애가 오늘에 있다고. 그것이 내일로 달려가는 후배 곁에 힘으로 더해지길 바란다고 적은 마음을.

3. 1996년 10월 6일에 쓰인 이 글 앞에 30년 만에 앉는다. 아빠를 찾아 연 상자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편지'들'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읽히길 기대하는 욕망은 유리병에 담겨 세월의 바다를 건넜다.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읽히고도 잊힐 수도 있다. 이야기가 힘으로 남는 대신 허무만이 읽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표류하던 말은 붙잡혔고, 기억을 잇는 현재의 욕망에 덧칠되고 있다. 나는 그들이 기대한 내일로 달려가는 후배의 모습일 수 있을까. 이곳에 소망의 잔해를 그대로 옮기는 걸 묻지 못했듯, 그것 또한 알기 어렵다. 다만 나는 그들의 소망을 삼켜 내 욕망을 덮는다. 덮인 것을 병에 넣는다. 다시 띄운다. 그리고 생각한다. 언제 올지 모를 내일은, 이 글을 보고 찾아온 이들이 다른 이들과 만나는 광경을 보면 좋겠다.

〈부록 2〉 글노래: 아카이브에 남기는 메모

전시장에서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스와니: 1989 아세아스와니 원정투쟁의 기록〉의 한 장면.

아빠가 한일노동자 연대운동 15년사를 들고 웃는다.

내 기억 속 아빠 사진은 웃는 게 많다. 이것도 그중 하나다.

난 아빠를 닮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빠지고 싶지도 않았고 아저씨 되기도 싫었고 웃으면 생기는 보조개도 싫었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다. 그래서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여전히 아빠의 주변에 있다.

아빠의 유고집 맨 앞에는 "조문익 열사가 걸어온 길"이 있다.

한 장짜리 그 길은 금방 끝난다.

"2006. 2. 7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 부인 이현선, 자. 용화, 용창"

누군가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변화는 끝나.

내가 말한다. 정말? 자, 이제 내가 "자"가 아니게 됐네.

그 뒷장엔 한 장짜리 글이 있다.

"운동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로 시작하는 네 문단 뒤, 물음표로 시작하는 세 문단.

"이런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응답.

"우리들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전진을 위하여! 행복한 혁명을 위하여"

나는 종종 전주를 돌아다니다 아직도 이 글이 벽에 걸려있는 걸 본다. 그러면 떠올린다.

나와 동생이 벽에 적힌 말을 따라하기라도 하듯 포즈를 잡은 그 사진을.

그리고 들려온다. 논실마을학교 빈 교실에서, 아빠는 다른 이들과 노래를 불렀다.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들렸다. 떠드는 당신들 웃음소리 사이로 노래가 들렸다.

"운동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저 글은 노래였다. 분명 그 시간, 운동은 노래였다.

저 글은 글이 되어 책에 놓였다. 나는 노래를 기억한다.

글 위에 내 글을 남긴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부록 3〉 기억 수록 목록

이 부록은 지면에 있지 않습니다. 글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는 온라인 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는 당신에게 〈부록 3〉을 띄웁니다. 글을 끝내며 알게 된 것을 여기 다시 적습니다.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아카이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글의 끝이 아니라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기억을 가진 모든 이들의 매듭, 기록의 입구로 남겨둡니다.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겨진 기억은 정리번호를 달고 수록되며, 제가 보존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억들을 함께 기록으로 읽을 수 있겠죠.

남기실 기억은 세 갈래입니다.

· 어긋남 - 당신이 기억하는 것과 이 글이 다르게 쓴 지점

· 바로잡음 - 기록된 사실관계와 다르게 쓰인 지점

· 전언 - 이 기억들에, 혹은 그 시간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 수록 원칙

1. 모든 기억은 수록 전 조용화 연구위원이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당사자가 원치 않을 수 있는 내용은 남긴 분과 상의해 조정합니다.

2. 수록된 기억에는 정리번호가 부여됩니다.

3. 동의해주신 기억은 추후 아카이브를 공동 관리하는 기관들에, 전북 민주노조운동 아카이브와 함께 보존하는 방안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4. 기억과 기록이 다를 때, 이 목록은 어느 쪽도 지우지 않고 둘 다 보존합니다.

- 기록 남길 곳/보는 곳 안내: jbli.re.kr/archive/12594